



일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와 시사점

황인창 연구위원

연구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금융당국이 IAIS가 개발 중인 ICS에 대응하여 자본규제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일본은 ICS를 모범으로 한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국제 보험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현행 우리나라와 일본 지급여력제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급여력제도 개편 논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외 경제적 실질에 기반한 감독 및 검사 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2007년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로의 전환”이 제안된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필드테스트가 수행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결과가 공개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통합 리스크관리(ERM) 및 지급여력자체평가(ORSA) 등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감독이 도입 중에 있음
- 일본은 필드테스트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고려한 제도 설계, 정밀한 기여도 분석, 자국 특성을 반영한 위험계수 및 충격시나리오 산출, 보험부채 평가 관련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함
 - 한 시점의 지급여력비율만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의 보험회사 재무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지급여력비율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기여도 분석이 필요함
 - ICS를 바탕으로 한 위험계수 및 충격시나리오는 일본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보험부채 검증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설립된 위원회를 통해 금융당국,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제도 설계 및 도입 로드맵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신제도 도입의 편익(기대 효과)과 비용(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과 시나리오 하에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함
 - 계량영향평가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특히 보험회사의 중장기적 재무건전성 유지와 함께 위험보장 및 장기자본 공급 등 보험회사의 사회경제적 역할, 보험산업의 공정경쟁, 금융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음

1. 검토 배경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금융당국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개발 중인 보험자본기준(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에 대응하여 지급여력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19년 5월 일본은 ICS를 모범으로 한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IAIS는 국제적 보험그룹(IAIG;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에게 일반적인 보험그룹에 적용하는 규제 외에 ICS 등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금융당국은 ICS 개발에 맞춰 자국 보험 자본건전성 규제 개선을 추진 중임
 - ICS는 IAIG를 감독하기 위해 만든 자본규제로 국가별 자본규제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 규제에 대한 국제표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IAIG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해외매출과 자산규모가 큰 보험그룹으로, 지정요건¹⁾을 미충족한 그룹을 IAIG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함
 - ICS 시행을 위한 관찰기간이 2020년부터 5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5월 일본 금융당국은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여력제도 개편 범위 및 로드맵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함
- 국제 보험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현행 우리나라와 일본 지급여력제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급여력제도 개편 논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이 ICS를 보험 자본규제의 표준이 아닌 그룹 감독의 보완 수단으로만 보는 상황²⁾에서 ICS에 대한 일본의 관점이 중요해진 시점임
 -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보험시장³⁾을 가지고, 보험 감독에 대한 국제 기준 제정 시 주요한 역할을 함
 - 현행 일본의 지급여력제도가 원가기준 부채를 기반으로 한 미국식 RBC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유사함
-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지급여력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과정 및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IAIG 지정요건으로 국제성(3개국 이상 영업하고, 해외 수입보험료 10% 이상)과 규모(총자산 USD 500억 또는 연간 수입 보험료 USD 100억 이상)가 있음

2) NAIC(2015), "U.S. State Insurance Regulators' Views: International Capital Proposals"

3) 세계보험시장을 보험료 기준(2017년)으로 살펴보면, 미국(USD 1조 3,992억), 중국(USD 5,414억), 일본(USD 4,245억) 순으로 큼(Swiss Re(2019), "World Insurance: the Great Pivot East Continues")

2. 일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검토



가. 추진경과

■ 일본은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제도인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함(〈표 1〉 참조)

- 현재의 지급여력제도는 1996년에 도입되었으나, 1998년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430%인 회사를 포함한 7개 보험회사가 도산하면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7년에 제도 개선방향을 공표함
- 단기적으로 위험 측정 개선, 신뢰수준 상향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자산, 부채 시가평가 즉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함

〈표 1〉 일본 지급여력제도의 검토 및 개선

시기	주요 내용
1996년 4월	· 보험업법 개정으로 지급여력제도 도입
1999년 4월	·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조기시정조치 도입
2007년 4월	· 「보험 자본건전성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 공표 - 단기: 현행 규제의 개선 - 중기: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로의 전환
2008년 9월	· 「유럽 선진 보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보고서 공표
2009년 6월	· “보험회사를 위한 종합적인 감독 지침” 개정 - FSF ¹⁾ 및 G20 논의에 따라 통합 리스크관리와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규정을 추가
2010년 4월	· 단기 검토 반영(현행 규제의 개선) - 위험 측정 개선 및 신뢰수준 상향 등(시행 시기는 2012년 3월말)
2010년 6월	·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관련 1차 필드테스트 실시
2014년 2월	· “보험회사를 위한 종합적인 감독 지침” 개정 - IAIS 논의를 반영하여 통합 리스크관리 및 지급여력자체평가(ORSA ²⁾) 규정을 개선
2014년 6월	·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관련 2차 필드테스트 실시
2016년 6월	·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관련 3차 필드테스트 실시
2018년 6월	·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관련 4차 필드테스트 실시
2019년 5월	· “해외 보험회사 내부모형 실패 등에 관한 조사” 공표

주: 1) Financial Stability Forum

2)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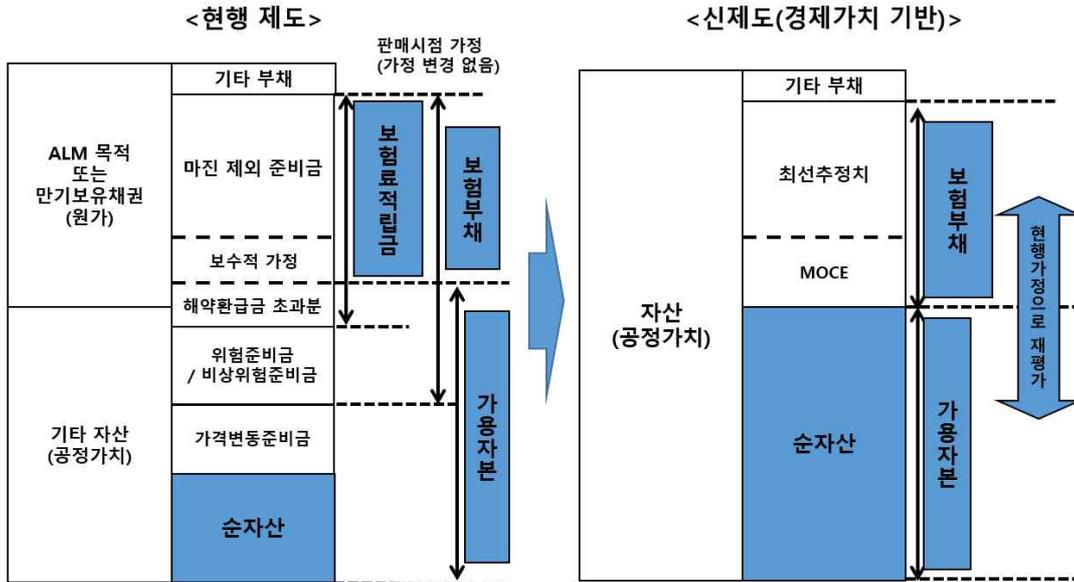
자료: 金融庁(2019), “經濟価値ベースのソルベンシー規制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 第一回事務局説明資料”

- 일본은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통합 리스크관리(ERM) 및 지급여력자체평가(ORSA) 등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감독을 도입하고 있음
 - 최근 보험회사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보험회사에 노출된 위험의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현행 지급여력 제도(정량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짐
 - 이를 위해 보험회사 위험관리 고도화를 촉구하면서 자산, 부채를 경제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개념을 검사 및 감독에 도입해 나가고 있음
- 최근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새로운 지급여력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ICS 시행에 뒤처지지 않게 도입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나.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비교

- 일본의 현행 지급여력제도에서 부채 평가는 보수적 가정하에서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신제도에서는 최적 가정하에서의 공정가를 기준으로 함(그림 1) 참조
 - 현행 지급여력제도에서 보험부채는 판매 시점의 가정으로 평가하여 평가 시점마다 재평가하지 않고, 가용자본은 순자산, 특별 준비금(위험준비금 등) 등의 합으로 산출됨
 - 부채 충분성을 위해 사망률, 이자율 등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고, 매년 선임계리사가 장기 현금흐름 분석을 통해 보험료적립금이 충분한지 검증하도록 함
 - 신제도에서 보험부채는 평가 시점마다 최적 가정으로 재평가하고, 가용자본은 자산, 부채 시가평가 즉 경제가치로 평가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함
- 요구자본(리스크) 주요 측정방식으로 현행 제도는 위험계수방식을 사용하지만, 신제도에서는 충격시나리오방식을 사용함(표 2) 참조
 - 현행 제도에서는 향후 1년간 95~99.5%(위험유형별로 다름) 신뢰수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 (VaR)으로 요구자본을 측정하지만, 신제도에서는 신뢰수준이 99.5%로 상향됨

<그림 1> 일본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신제도 비교: B/S



자료: Japan(2019), "Insurance Supervisory Regime: Prudential Regulation", Financial Services Agency

<표 2> 일본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신제도 비교: 주요 차이

구분		현행 제도	신제도
가용자본	자산	· GAAP 기준 - 경제적 가치 (ALM 목적 또는 만기보유채권은 제외)	· 경제적 가치
	보험부채	· GAAP 기준 - 판매 시점의 기초율로 평가 - 보수적 가정	· 경제적 가치 - 평가 시점의 기초율로 평가 - 최선추정부채와 MOCE ¹⁾ 로 구성
요구자본 (리스크)		· 대부분 위험계수방식으로 측정 - 위험계수 × 위험익스포저 · 신뢰수준: 위험유형에 따라 95~99.5%	· 대부분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 - 충격시나리오에 따른 순자산가치 변화 · 신뢰수준: 99.5%

주: 1) Margin Over Current Estimates

자료: Japan(2019), "Insurance Supervisory Regime: Prudential Regulation", Financial Services Agency

다. 계량영향평가

■ 일본 금융당국은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해 2010년 이후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4차례 필드테스트를 실시함(표 3) 참조

- 필드테스트는 보험회사의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 산출 준비상태, 실무적 과제, 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 다양한 경제적 가정하에서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됨
- 1, 2차 필드테스트는 IAIS와 EU에서 논의한 산출방법 등을 참고하여 금융당국이 제시한 방법론을 활용했지만, 그 이후 필드테스트에서는 ICS를 수정없이 활용함

〈표 3〉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관련 필드테스트

구분	시기	방법론	지급여력비율		국채 10년 금리	주요 결과
			생보	손보		
1차	2010년 6월~12월	· IAIS와 EU에서 논의한 산출 방법 및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정을 사용 · 요구자본 측정 시 신뢰수준은 95%	· 정량적 결과는 미공개		-	· 경제가치 평가의 의미와 유의점, 산출 부담과 내부모형 활용 등 실무적인 의견이 많이 제출
2차	2014년 6월~2015년 1월	· 1차에 비해 복잡한 방법론(보험 및 시장리스크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 등)을 채택 · 요구자본 측정 시 신뢰수준은 95%	150%	201%	0.41%	· 신뢰수준 상향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 · 준비기간, 간편법, 내부모형 활용, 향후 일정 등에 관한 의견이 주로 제출
3차	2016년 6월~12월	· ICS 1.0(2016년 6월) · 경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표준모형 및 내부모형의 차이 분석을 실시	104%	194%	-0.04%	· 생명보험의 경제적 가정에 대한 지급여력비율의 민감도가 크다는 것을 확인 · 한 시점의 지급여력비율만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의 재무상태 파악,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고려한 제도 설계 중요성 등을 인식
4차	2018년 6월~12월	· ICS 2.0(2018년 6월) · 경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표준 모형 및 내부모형의 차이 분석을 실시	141%	189%	0.04%	· 개별회사의 실태에 기반한 리스크 측정, 보험부채 산출 검증의 중요성 등을 인식

자료: 金融庁(2019), “經濟価値ベースのソルベンシー規制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 第一回事務局説明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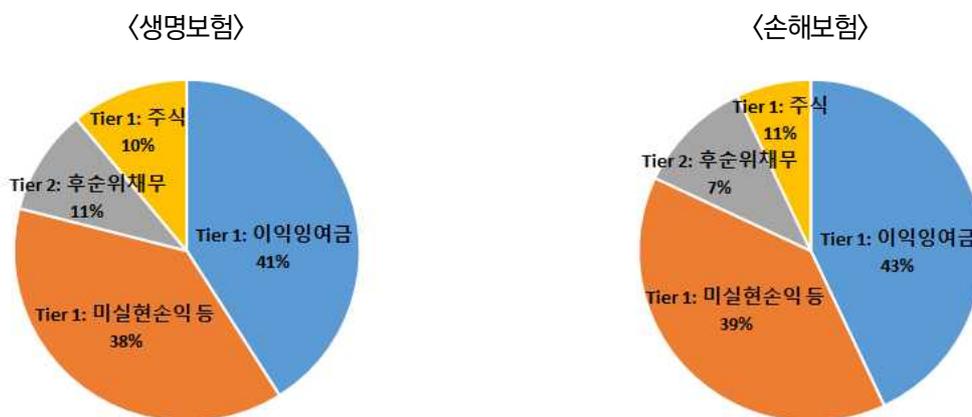
- 일본 금융당국은 필드테스트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고려한 제도 설계, 정밀한 기여도 분석, 자국 특성을 반영한 위험계수 및 충격시나리오 산출, 보험부채 평가 관련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함
 - 한 시점의 지급여력비율만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의 보험회사 재무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함
 - 생명보험의 경제적 가정(특히 금리)에 대한 지급여력비율의 민감도가 크다는 것을 확인함
 - 신제도에서 산출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점 변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기여도 분석이 필요함
 - ICS를 바탕으로 한 위험계수 및 충격시나리오는 자국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부채 검증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최근에 실시한 필드테스트(4차, 2018년 3월 기준) 결과를 살펴보면, 이전 필드테스트(3차, 2016년 3월 기준)에 비해 지급여력비율이 생명보험은 상승하고 손해보험은 하락함

- 생명보험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37%p 상승하여 141%를 보이고, 주된 상승 요인은 주가 상승임
- 손해보험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5%p 감소하여 189%를 보이고, 주가가 상승했지만, 산출방법 변경으로 최종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함

■ 가용자본 구성을 살펴보면, 이익잉여금의 비율이 가장 높고, 미실현손익이 그 다음을 차지함(그림 2) 참조

- 미실현손익은 자산, 부채 시가평가에서 발생하는 항목으로 신제도 도입으로 자산, 부채 평가 기준이 시가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재무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림 2〉 4차 필드테스트 결과 - 가용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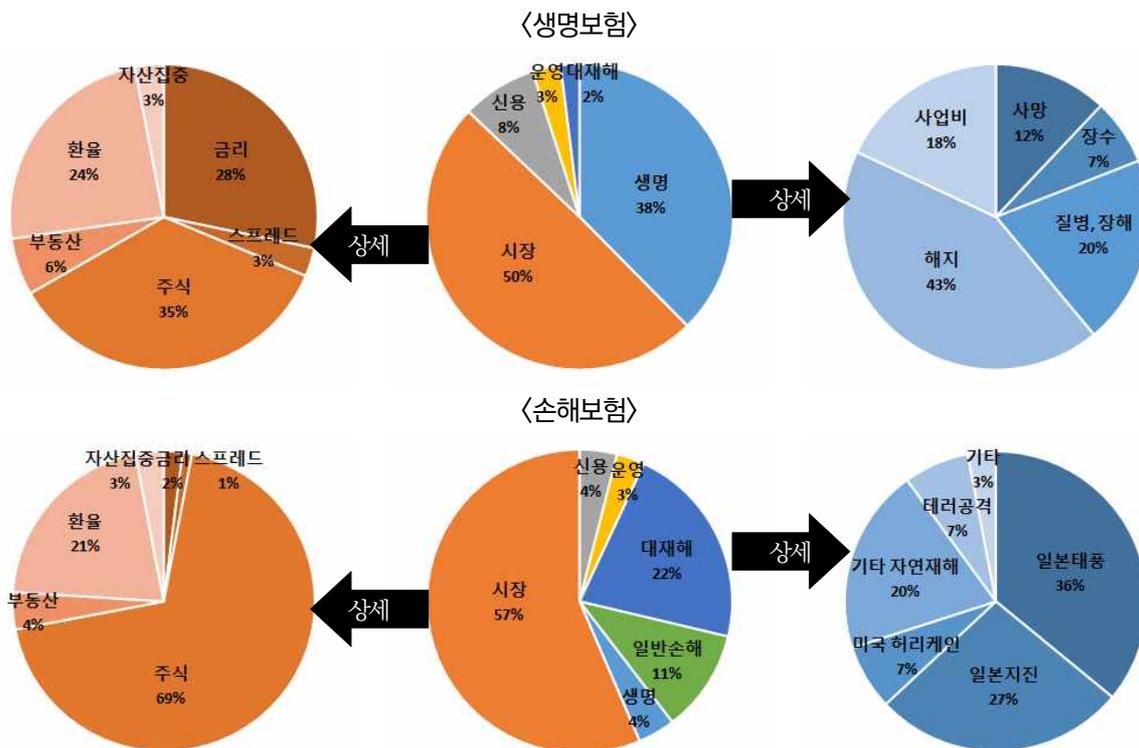


자료: Japan(2019), “Field Tests of Economic Value-Based Evaluation and Supervisory Method: 2018 Results and 2019 Direction”, Financial Services Agency

■ 요구자본 구성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시장리스크(50%)와 생명보험리스크(3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손해보험은 시장리스크(57%)와 대재해리스크(2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그림 3) 참조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시장리스크에서는 주식(35%), 금리(28%), 환율(24%) 순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생명보험리스크에서는 해지(43%), 질병·상해(20%), 사업비(18%) 순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시장리스크에서는 주식(69%)과 환율(2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재해리스크에서는 일본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63%를 차지함

〈그림 3〉 4차 필드테스트 결과 - 요구자본



3. 일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관련 주요 논의사항

가. 외부자문위원회 구성

- 2019년 5월 일본 금융당국은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회를 설립함(〈표 4〉 참조)
 - 일본은 법규 변경 시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금융당국은 논의주제 선정 및 위원회 구성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는 학계,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됨
 - 위원회는 의사록을 통해 어떤 의견이 제기되었는지 금융당국에게 전달하고, 금융당국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함
 - 이번 외부자문위원회는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설립됨
 - 위원장으로 전문성 있는 교수를 선임하고, 경영컨설턴트, 애널리스트, 계리사, 회계사,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험회사 임원 등이 참관인으로 참여함

- 자문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할 예정이고, 논의 내용도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게 할 예정임

〈표 4〉 경제가치 기반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외부자문위원회 구성원

구분	이름	소속
위원장	Takau Yoneyama	도쿄경제대 경영학부 교수
위원	Yoshihiro Kawai	교토대 경영대학원 교수
	Yoko Shirasu	아오야마 가쿠인대 경제학부 교수
	Sakura Takeshita	나고미 FP 회장
	Natsumu Tsujino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 선임 애널리스트
	Takanori Hoshino	밀리만 선임 컨설턴트
	Naoki Matsuyama	메이지대 학제간 수리과학부 교수
	Takanobu Miwa	KPMG AZSA 파트너
	Yuji Morimoto	캐피타스 컨설팅 회장
참관인	Ken Itaba	AXA생명보험 최고위기관리자
	Tomohisa Kawasaki	일본생명보험 임원
	Hideo Shiraki	AIG일본 임원
	Naoki Sunamoto	부국생명보험 선임계리사
	Toshihiro Miyazaki	아이오이 닛세이도와 손해보험 임원
	Jun Miyamoto	일본계리사회 부위원장

자료: Japan(2019), "Study Group on the Economic Value-based Solvency Framework: List of Members", Financial Services Agency

나. 주요 논의사항

- 외부자문위원회에서는 신제도 도입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그림 4) 참조

-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의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회사 측면] 보험회사의 중장기적 재무건전성 유지 및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지만, 수익성 저하 및 시장 불안 고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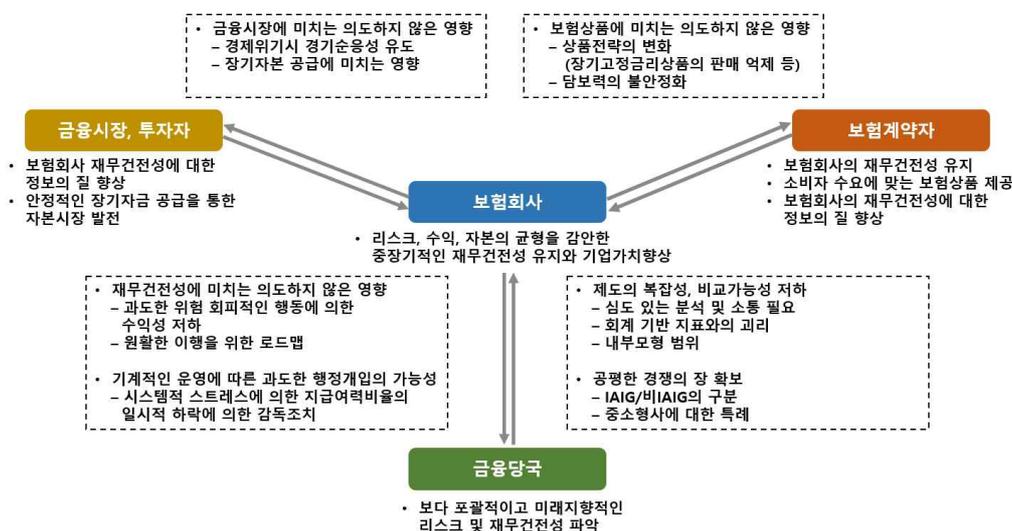
- 신제도 도입은 위험, 수익, 자본의 균형을 고려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중장기적 재무건전성 유지 및 기업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험회사의 과도한 위험회피적 행동에 의한 수익성 저하, 시스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시장 불안 고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 투자자 측면]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의 질 향상과 자본시장 발전이 기대되지만, 보험회사의 장기투자자 역할이 저해될 수 있음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보의 질 향상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 지고,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장기자본 공급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과도한 위험민감도 제고는 보험회사의 단기 변동성을 견디는 능력을 감소시켜 경제위기 시 경기순응성을 유도하고 보험회사의 장기투자자 역할을 저해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 측면]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지만, 상품 가용성 제한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 소비자 수요에 맞는 보험상품 제공,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보의 질 향상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음
 - 장기상품의 보험료 상승이나 보장 담보 축소 또는 기존 장기상품의 판매 중단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보험 가용성을 제한할 수 있음

- [금융당국 측면]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파악이 기대되지만, 비교가능성 및 공정경쟁이 저하될 수 있음
 -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위험 및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 것을 기대함
 - 제도 복잡성으로 인해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사업부문이 한정적인 중소형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하시킬 수 있음

〈그림 4〉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관련 주요 논의사항



자료: 金融庁(2019), “經濟価値ベースのソルベンシー規制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 第一回事務局説明資料”

■ 이에 외부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임

- 경제가치 기반 자본규제 도입은 보험회사와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 신제도 도입으로 각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가?
- 편익(기대 효과)과 비용(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제도 설계상의 이슈에 대해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ICS 등을 반영한 국내 제도의 설계: 적용 범위, 국내사정 반영, 실무적 부담에 대한 고려 등
 -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의 평가 및 운영
 - 내부모형의 취급
 - 지급여력비율 산출 절차 검증
- 경제가치 기반 자본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조치와 향후 일정은 무엇인가?

4. 시사점



■ 일본의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은 기존 지급여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의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K-ICS 도입과 유사함

- 우리나라 현행 지급여력제도(RBC)는 자산, 부채의 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위험측정방식이 단순하여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K-ICS는 자산, 부채를 시가로 일관성 있게 평가하고 위험민감도를 높임
-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K-ICS 개발 시 ICS를 모범으로 삼고 있으며, ICS 개발 및 시행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음

■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신제도 도입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 이외 경제적 실질에 기반한 감독 및 검사 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현행 준비금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제도 설계 및 도입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고 있음
- 2007년 외부자문위원회에서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로의 전환”이 제안된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의 필드테스트가 수행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결과가 공개되고 있음
- 통합 리스크관리 및 지급여력자체평가 등을 강조하는 한편, 원칙 중심의 보험부채 및 위험 평가에서 가정

및 모형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 또한 신제도 설계 시 금융당국,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신제도 도입의 편익(기대 효과)과 비용(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시점과 시나리오 하에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함
 - 계량영향평가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신제도 설계 및 도입 로드맵 설정 시 보험회사의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 유지와 함께 위험보장 및 장기자본 공급 등 보험회사의 사회경제적 역할, 보험산업의 공정경쟁, 금융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음 **kiri**